

전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나서

운영형태 다양화·지역연계 협업강화·학교별 특화교육 유학생 주거여건 개선 등 체계적 지원 통해 재도약 모색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에도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전남의 강점인 자연친화적 생태환경과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열린 2023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를 통해 지난 2021년 시작해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는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단기형과 장기형 등 기간별 운영을 다양화하고 가족제류형과 농가홈스테이 등의 운영방식도 더욱 내실화해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침체에 빠진 지역사회와 전남교육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학 온 지역에 전 가족이 이주해 3

년 이상 생활하는 정주형 장기유학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및 지자체·법부처 협력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재도약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상호협업의 및 공동 추진, 시·군 지자체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제정 및 유학경비 지원 시군확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학생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빈집 리모델링, 주택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 관리 등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과도 협력해 △ 농촌유학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 △ 가족 체류형 주택 확보 △ 팜스테이 연계 체험 활동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구

성해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특색이 담긴 지역화 교육과정으로 작은 학교별 특색프로그램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대중 교육감은 31일(화) 해남 지역 교육현장 소통을 통해 전남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해남 마산초등학교에서 교육공동체와 간담회를 갖고 작은학교별 특화 교육과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미래교육 여건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늘어나는 등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이제 학교 교육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농산어촌의 작은학교가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해남지역 교육현장 소통에서 참석자



들은 지속가능한 학교 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특화시키고 지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전남농산어촌 유학은 전남 외 지역 초·중 재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학습과 온마을 돌봄을 연계한 자연환경생태환경 교육을 경험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전남 농산어촌

의 학교로 전학 와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첫해인 2021년 82명이던 유학생은 지난해 2학기 30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 1차례(6개월) 이상 유학 기간을 연장한 학생도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이슬 기자

광양공공도서관, 겨울학기 학생 강좌 성료

광양공공도서관은 1월 3일 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한 총 7개의 겨울학기 학생 평생교육 강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겨울학기 학생 평생교육강좌는 매년 겨울방학 기간에 광양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감성지수와 창의력을 높이고 사고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강좌 위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7개 프로그램(한뎀한뎀 정소년 소인교실, 뮤지컬 스펀 나타, 생생과학교실, 좋은책 톺아보기, 메타버스의 이해와 활용, 요미요미·나도 요리사, 놀이수학&보드게임 등)



을 운영하였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에 총 95명이 신청하여 운영되었다.

광양=김현근기자

화순초, 디지털 역량 움 틔우는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호남대 연계 SW·AI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화순초등학교는 호남대학교와 연계하여 1월 25일~2월 1일, 1주간 '디지털 새싹 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프는 방학 전부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총 32명의 학생이 선별되어 참여하였다.

'디지털 새(New) 싹(Software·AI Camp)'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화순초는 호남대와 연계하여 '디지털 새싹 캠프(AI큐브 캠프)'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호남대에

재직 중인 6명 교수(이성아 교수 외 5명)가 직접 방문하여 인공지능의 이해, 메타버스, 엔트리, 기초코딩 및 햄스터 로봇 등 교육을 학생들 개개인 1:1 맞춤형·수준별 SW·AI교육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은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한 취지에 걸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생들의 기본적인 SW·AI 이해도 향상을 위한 강의는 온라인으로 수강하였으며, 학생



들이 직접 만지고, 느끼고, 깨우치기 위한 '신기한 세상! 메타버스', '내 손으로 만들어 보는 인공지능(엔트리·기초 코딩 및 햄스터 로봇)' 프로그램은 현장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화순=박순철기자

장흥교육청, 찾아가는 마음성장 프로그램 실시



장흥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월 10일부터 2일까지 유치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초·중학

교 5개교를 방문하여 겨울방학 찾아가는 마음성장 프로그램 「마음톡톡」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3학년~중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 및 관계향상을 위한 나만의 힐링 화분 만들기·보드게임·감정코칭을 위한 놀이·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구성되어, 나를 표현하고 또래와의 소통과 활동으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하였다.

장흥=김수권기자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가족 배구장 가는 날' 행사 개최



관내 학생 및 광주교육가족 700여 명 참여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관내 학생 및 광주교육가족 700여 명이 참여한 '광주교육가족 배구장 가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이후 회복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점선 교육감을 비롯한 광주교육가족,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해 열띤 응원을 펼쳤다.

'광주교육가족 배구장 가는 날' 행사는 시교육청이 주관하고 페퍼저축은행에서 후원했다. 광주교육가족들의 여가를 지원함과 더불어 배구선수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선수들과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이슬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